

소주 사랑



지영서 KBS 아나운서

시 집 가 처음 부엌 근처에 가득 차 있는 1.8리터 페트병의 소주들을 보며, 나는 시어머님께서 과실주를 많이 담그시는 줄만 알았다. 어느 토요일 전주에서 교편을 잡느라 따로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서울 집에 올라오신 날! 시아버님과 아들 사형제, 마주앉은 오부자(五父子)는 그 페트병의 소주를 식탁 가까이 두고 반

주로 마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녁 한 끼에 몇 통이 바로 동이 나고 말았다.

그날 밤, 막내 서방님은 부엌에 물 마시러 가다 '우당탕' 돌솥 뚜껑을 깨뜨렸고, 시아버님은 밤새 노래를 부르셨고, 나의 신랑은 밤새 물을 들이켰으며, 셋째 서방님은 이를 깔았고, 둘째 서방님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정말 황당한 풍경

이었다. 그때부터 소주란 놈은 나와는 애증의 관계가 되었다.

친정아버님은 술 한 잔만 드셔도 얼굴이 빨개지며 잠자리에 들기 바쁘셨기에 내게 술이란, 특히 소주는 낯선 대상이었다. 여대를 다녀 학창 시절에도 기껏해야 생일 축하주로 친구들끼리 마주앙 정도를 훌쩍였으니 독주라고 생각한 소주를 마셔본 기억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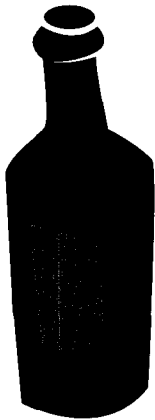
그런데 그날 한 모금 맛이나 보자고 받아 마신 소주의 맛이 참 깨끗하고 담백했다. 남편의 주량을 줄인다는 작전(?)으로 그날부터 저녁식사마다 남편이 건네는 반주를 받아 마시기 시작했다. 한 병을 이삼 일에 나눠 저녁식사 반주로 마시던 소주가 어느 기간이 지나자 주저니 받거니 누가 더 마시는지도 모르게 하루에 한 병씩 비워지기 시작했다. 그 얼마 후 시할머님께서 손자며느리가 소주를 잘 마셔 당신의 큰손자가 손자며느리 술값 벌려면 정말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셨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반주가 점점 소주 한 병이 모자라게 되고 저녁을 먹기 위해 반주(飯酒)를 하는 건지 반주를 하기 위해 저녁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주객이 전도됐다. 결국 나는 반주를 끊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마시라고, 건강에 해롭다고, 술에 장사 없다고……. 그러자 저녁식탁에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저 숟가락과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들렸다. 남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반찬 투정이 늘어갔다.

나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식사시간이 즐거워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안주를 푸짐하게 잘 만들어 맛있게 소주 반주하며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 신혼 초이던 당시부터 5년여 단독주택에 산 덕분에 여름이면 마당에 평상을 펴고 삼겹살을 구워 마당에서 가꾼 무공해 채소 쌈을 싸서 소주 한 잔 반주하며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다. 그리고 해물 매운탕이며 생선찌개며 돼지갈비에 김치찌개 등 할 수 있는 소주 안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길 수년, 나의 복부는 점점 풍만해져 이제는 그때 나온 배를 되돌리기가 힘들 정도가 됐다.

보통 소주병(360ml)으로는 한 병을 마시고 조금 양이 모자라다며 또 새 병을 따 마시는 남편을 자제시키려 어느 날부터 양이 좀 더 많은 프리미엄 소주(375ml)로 바꾸었으나 이제 그 양도 자꾸 넘으려 해 걱정이다. 이렇게 평생 소주를 하루에 한 병씩 마시다 보니 소주를 사다두는 일도 큰일이다. 하루는 옆집 아주머니가 소주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나를 도와주며 물었다. "그 댁은 손님을 자주 치르시나 봐요?" "아? 예?"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매일 마셔세요.' 나는 속으로 읊었다. 그러면서도 소숫값 인상설이라도 들리면 약간의 사재기까지 감행하는 나다.

몇 년 전에 작은아들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 다녀와 한마디 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술 안 마시는 자신에게 아직도 술을 못 마시냐며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놀려, 조용히 한마디 했노라고. 우리 집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작



은아버지들께서 함께 저녁식사 때 반주로 1.8리터 페트병 소주 하나를 다 비운다고. 그러니 나도 마시기 시작하면 너희들 마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했다나!

소주 잘 마시는 부모에게 질려서인지, 군대까지 다녀온 두 아들은 요즘도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면 콜라를 마신다. 물론 그 애들의 엄마와 아빠는 소주를 나눠 마신다. 간혹 중업원들이 내 쪽에 콜라와 콜라잔을 놓고 아들들에게 소주잔을 놓고 가면 조용히 바꿔놓는다. 이렇게 소주 사랑이 넘쳐 외국여행을 갈 때 팩소주 챙기는 것도 큰일 중 하나다. 2년 전 유럽여행 때 그래도 많이 갖고 갔건만, 알프스의 헬브룬 봉우리 전망대에서 점심식사 때 소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식사하던 일행이 팩소주를 몇 개 갖고 우리 자리로 왔다. 오늘 소주를 안 드시는 것 같아 남은 것을 좀 갖고 왔노라고. 며칠 쪽 우리를 지켜봤던 모양이었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그 지역 고유의 소주들이 있다. 나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되도록 그 지역의 소주를 마시려 한다.

1995년 KBS 제주총국 아나운서 부장으로 제주에서 일 년을 혼자 생활했다. 그때 그곳 KBS 직원들 사이에는 그 고장 한라산 소주를 1,000병은 마셔야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면서 밤 9시 지역뉴스를 마치고 10시쯤 방송

국을 나서는 내게 청원경찰 아저씨를 통해 메모들을 남겼다. 기자들은 A 음식점에, PD들은 B 술집에, 카메라 팀은 C 주점에……. 제주에서 마시는 술이 신기한 게 좀 많이 마셔도 숙취가 덜한 듯하다. 맑은 공기와 맛있는 해산물 안주가 술을 덜 취하며 마시게 하는가 보다.

퇴근 후 오피스텔에서 비디오 보며 학꽂치 안주에 한라산 소주 마시던 그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참 행복한 기억이다. 아이들 봐주시는 친정어머님과 남편에게, 그리고 엄마 손길 기다리는 두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말이다. 다행히 한라산 소주 목표량을 훨씬 덜 채우고도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동안 소주(燒酒, 燒酎)의 한자 표기 차이나 소주의 종류, 소주의 도수에 상관없이 마실 줄만 알고 남편 술 좀 줄이라 잔소리만 가끔(?) 하다가, 소주와 관련된 글을 쓰며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웬걸! 소주박사들이 만만치 않았다.

첨가물의 종류,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한 소주 맛을 내며 소주의 종류가 정말 많아졌다. 예전엔 그저 빨간 두꺼비 그림의 'G' 소주만 마시면 됐는데 이제는 소주 광고 모델의 선호도에 따라 소주의 선택이 달라졌다. 그래도 소주는 자신의 입맛에 정든 것만을 찾는 사람도 많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옛 맛이 더욱 그리운 게 아닐까?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마시면 한잔 술에도 “크~옥” 하며 “그래 바로 이 맛이야!”라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울 것이다.

나는 인연(因緣)과 초심(初心)을 중요하게 생각

한다. 후배나 신입 아나운서들을 교육할 때도 늘 말한다. 방송은 협업이므로 방송으로 맺어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늘 아나운서 합격 때 받은 처음 그 느낌으로 일관성 있는 자세로 직장생활을 하기를 당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이란 말이 들어가는 소주가 더 다가오는 듯하다(상품 광고는 아님).

얼마 전 설에도 전주 시택에 모인 삼형제는 변함없이 페트병 소주를 줄 세워놓고 마셨다. 4년 전 82세로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6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간 셋째 서방님의 빈자리 때문인지 모처럼 술이 남긴 남았다. 평생 시아버님 술사탕에 진저리를 치셨던 시어머님께 당신의 아들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면 그래도 아들을 두둔하신다. “너희 시아버님은 그렇게 안주 없이 소주를 드셨어도 여든 넘어 가셨으니, 너는 안주라도 잘 챙겨주며 살살 달래 조금 줄이게 해라.”

명색이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소주 사랑이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알코올 중독의 위해성에 대해 상담해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흡연의 위해성 못지않게 알코올 의존성도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에 대한 관대함은 달라져야 한다고 흥분하신다. “그 사람은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양반이라고.” 그런데 그 술이 문제를 일으킨다. 적당량의 술을 기분 좋게 사회생활에 지장 없이 마실 수만 있다면 야 누가 뭐라 할까? 그런데 소주를 맥주잔에 마시며 한 잔이라 우긴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까?

27년 전 시할머님께서는 손자며느리 술값을 걱정하셨지만, 이제 정년을 앞둔 큰손자의 소주값 때문에 그 손자며느리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저 / 자 / 소 / 개

지영서(池令瑞) _ KBS 초대 한국어 팀장, 제주방송총국 아나운서부장 역임/ 1998년 제8회 아산 호 문화상 수상 (개인) · 2003년 노인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개인) · 2005년 한글발전 유공 대통령상 수상 (개인) · 2006년 삼성 언론상 특별상 수상(단체) 등/ 현재, KBS 1Radio <지금은 실버시대>, <건강플러스> 진행.